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14년 상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집회시간에 이유진 선생(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강의 제목은 '에너지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법 - 전환도시, 전환마을 이야기' 입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7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강원도 홍천 감자 예약 주문 받습니다. 1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세요.

수박, 참외, 자두, 살구... 맛난 과일이 한창입니다. 과일을 드시며 '열매'에 대해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창 22:1~14 / 시 13
롬 6:12~23 / 마 10:40~42

마 11:16~19, 25~30

오늘 식당 봉사 : 박영신 조순덕 허명선 김정미 고정립 이종배 김종락
다음 주 식당봉사 : 이형숙 광혜자 장은숙 이명희 강영님 문홍일 박호규
오늘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박진숙 추현영
다음주설거지봉사 : 아동부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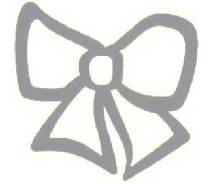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도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를 보며 열정과 끈질김을 배웁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탓하며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미리 내다보며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고성에서 있었던 총기사고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분단된 조국, 휴전의 상황에서 늘 전쟁을 준비하며 손에 총을 들고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치유와 평화의 바람을 보내주셔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박숙영 선생
곽상준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경희 고숙이 곽상준 최경미 김기석 김희우 김명화 오형일 김성우
박유경 김순자 김용진 박효선 김인석 이선화 김정훈 이진영 김현동
오유경 김혜권 박재임 김훈동 유경순 박병구 박상욱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백성래 안세진 안종일 정현주 양상철 박재란 오미숙 윤수진
이경남 이광섭 이봉옥 이영준 이재삼 전정현 이정은 이주경 임서영
장기욱 장동훈 정은선 장원호 박성희 전인섭 정영우 김지윤 조병주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한인철 조윤숙 허신열 강금연 허호범 박성실
홍소형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김대규 박경애 김재흥 최희영 김진중 김혜영 주명재 한성자 진정권
한규숙 한미영 무명12

생일감사헌금

박병구

녹색꿈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향자 박호규 강영님 윤미경 윤수진 정수현 무명2

백혜숙	박성희	고숙이	조순덕
신진식	최경미	정복이	임정자
장영숙	신영신	이명희	장영숙
노순옥	진정숙	박옥순	조병주
박홍재	박홍재	김윤수	김경수
권미숙	박미영	박효선	김배상
김금순	김금순	강순배	오복순
곽권희	윤수진	이정은	곽권희
안홍숙	오현정	임영선	정현주
정영선	홍춘숙	김경혜	정옥영
박혜경	박혜경	백성래	정현숙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말빛

- 이회중

그때 내게 말했어야 했다
 내가 그 책들을 읽으려 할 때
 그 산을 오르기 위해 먼 길을 떠날 때
 그 사람들과 어울릴 때
 곁에서 당신들은 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삶은 결국 내가 그 책을 읽은 후 어두워졌고
 그 산을 오르내리며 용렬해졌으며/ 그 사람들을 만나며 비루해졌다
 그때 덜 자란 나는 누구에겐가 기대야 했고
 그런 내게 당신들은 도리 없는 범례였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게 그 말을 해야 했다면,
 누구한테선가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했다면
 그 누구는 필경 당신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당신들은 늘
 말을 아꼈고 지혜를 아꼈고 사랑과 겸허의 눈빛조차 아꼈고
 당신들의 행동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謝過와 謝罪의 말 없이 침묵하였다
 당신들에게 듣지 못한 말 때문에 내 몸속에서는 불이 자랐다
 이제 말하라, 수많은 그때 당신들이 내게 해야 했던,
 그때 하지 않음으로써 그 순간들을 흑백의 풍경으로 얼어붙게 한
 그 하찮은 일상의 말들을 더 늦기 전에 내게 하라
 아직도 내 잠자리를 평온하게 할 것은,
 내가 간절히 듣고 싶었으나 당신들이 한사코 하지 않은 그 말뿐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들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흥청거리는 세상의 잔치에 매몰되어 살지 마십시오. 그 잔치를 위해 고통당하는 이들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찾아가 귀한 것 드리며 사십시오.

아멘. 풍요와 번영을 마음껏 누리려 할 뿐 그로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음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계신 주님을 찾아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너지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법 특강 : 이유진 선생	7월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이범석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서효진 선생 김훈동 권사

6	영접위원	방문성 윤성종 송동준 안정숙 김윤정 김진경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에너지 전환, 왜 지역이 주도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매해 여름마다 고질병처럼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여름에는 상황이 정말 심각했지요.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따라 8월의 폭염 속에서도 냉방 없이 지내야 했던 공무원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해 여름의 전력난은 핵발전소의 비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 5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원전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다고 발표한 직후 각종 핵발전소와 관련한 비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됐지요. 가뜰이나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한여름에 전력 공급이 줄어서 많은 시민들이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꼭 핵발전소 비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가 계속 늘어나서 해마다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전력난이 여름에만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난방용 전력 소비가 급증해 겨울에도 전력 피크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전력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든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발전소를 지을지 선택하는 것부터 난제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자니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핵발전소를 짓자니 사고 위험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발전소도 발전소지만 송전망 건설 역시 밀양 사례에서 보듯 국가가 전처럼 마구 밀어붙여서 해결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한국 전력공사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구까지 보내기 위해 건설하는 765kV의 송전탑 때문에 밀양 주민들이 벌써 9년째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중 두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요. ... 이제 전력 계획을 잘 세워서 대비하는 것 정도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전력 계획 자체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방식이 아니라 절

약과 지역 분산형 발전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책임을 지는 시대, 즉 지역 에너지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가 여러 에너지 관련 회의에서 만난 해외의 연구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석유나 핵발전소, 가스 그 자체가 아니다. 에너지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따뜻하면 되는 거고, 밝으면 되는 거고, 시원하면 되는 것이다.”

에너지를 이렇게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석유를 수입하고 핵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채광을 이용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요. 굳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먼저 최대한 고민한 뒤에, 그래도 모자란 부분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방식을 고민하면 됩니다. 이때도 무조건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는 에너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별로 ‘전력 자립도’라는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우리 지역의 전력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장기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땅이 좁아서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본격적인 소비 절감을 통해 다른 지역에 의존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이 주도한다면, 에너지 전환시대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이유진(공저), 「탈핵학교」 중에서

이유진 -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 서울시 시정평가 자문위원, 경기도 교육청 환경생태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